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 율법, 믿음, 기도

A. 기독교인의 자유 -1

1. 기독교인의 자유 논의. 자유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복음도 진리도 올바르게 알 수 없다.
2. 기독교인의 자유는 세 부분.
첫째,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칭의에 대한 확신을 찾는데 있어 일체 율법적 의를 잊어 버리고, 율법을 넘어서야 하며, 그 범위를 능가해야 한다. 율법에 대한 언급을 배제하고, 하나님 자비만 붙잡고, 자기 자신들로부터 눈을 돌려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
3. 둘째부분은 양심이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으로 그들의 행위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A. 기독교인의 자유 -2

4. 세 번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외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종교적 의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들을 사용해도 좋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어도 좋은 그런 것이다. 자유에 대한 지식은 필수불가결.
5. 바울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성별되었으므로 오직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딤후 4:4-5) 천명했다. 여기서 감사라는 뜻은 자기의 선물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말미암았다고 깨달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것을 뜻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 용도를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 떠는 양심을 진정시키는데 있다.
6. 사람들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들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절제한 욕망과 과도한 낭비의 허영과 교만을 떨쳐 버려야 한다.

A. 기독교인의 자유 -3

7. 제 각기 분수에 맞게 소박하게 혹은 적당하게 혹은 풍성하게 생활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지 사치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명심하도록 하라고 칼빈은 경고한다.
- 8-9. 우리는 주께서 강경하게 우리에게 명하신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 한계를 극히 신중하게 고수해야 한다. 칼빈은 자유의 사용을 절제해서 연약한 형제들의 무지에 대해서는 양보할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의 가혹함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10. 우리의 자유가 이웃을 올바르게 세워 준다면 이를 행사해야 하지만,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A. 기독교인의 자유 -4

11-12. 양심이 인간들의 마음대로 율법과 조직의 멍에에 얽매인다면, 양심은 틀림없이 자유로부터 끊어졌을 것이다 (갈 5:1, 4).

13. 인간에게는 두 가지 통치가 있다. 하나는 영적 통치로서, 이를 통하여 양심은 경건과 하나님에의 경건을 배운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통치로서 이를 통하여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도리와 사회 생활의 의무들을 교육받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각기 별개의 왕과 별개의 법의 지배를 받는 두 세계가 있는 것이다.

B. 교회의 권능 -1

14.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롭게 하신 문제들에 있어서는 양심에 대해 의무감을 부여해서는 안되며, 만약 자유롭게 않다면 양심은 하나님께 대해 평안할 수 없다는 이것이다. 만일 양심이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획득하신 은혜를 계속 보존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 또는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유일한 자유의 법, 즉 거룩한 복음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양심은 어떤 예속상태에 처해서도 안되고, 어떤 속박에 얽매어서도 안된다.

내면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얽매기 위하여, 그리고 마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명령하는 것처럼 양심을 망설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런 법령들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세교권주의자들, 곧 인간들이 만든 “교회의 헌법들”은, 무한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 채어 함정에 빠뜨리는 덫이다.

B. 교회의 권능 -2

15. 교회의 권세란 없다는 말인가?

이 권세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군들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전 4:1,9) 생각. 이 권세를 하나님 말씀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정의한 셈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을 때도, 그 권세에 이 한계들을 두셨다 (마 28:20).

만약 우리가 사도들과 제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두를 차례대로 고찰해보면, 그들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명령하거나 가르치거나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권위도 부여받지 못했음을 발견할 것.

B. 교회의 권능 -3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그의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봄으로써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다 (고후 3:18). 선지자들은 바로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지혜요 빛이요, 진리인 그 아들이 아닌 다른 통로로는 결코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르치는 모든 일을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최종적이고 영원한 증거로 간주해야 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 17:5). 오직 그에게만 구원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찾고, 그에게만 의뢰하고 매달리라고, 요컨대 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B. 교회의 권능 -4

16. 이것은 인간이 창안해낸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어떤 두뇌에서 고안한 것이든 간에) 신자들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17. 교회사역자들의 권한이 어떤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요 말씀을 맡은 자로 임명받았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담대하게 모든 일 감행하며, 세상 모든 권력과 영광과 위대함을 물리쳐 하나님 위엄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케 하며,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되 사탄의 집은 분쇄하며, 양무리는 기르되 이리들은 쳐서 멸하며, 잘 배우는 자들을 권면하여 가르치며, 반역적이고 완고한 자들을 나무라고 질책하여 복종시키며, 매거나 풀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이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모든 인간적 관습 (교회와 사제들 독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 믿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음으로, 인간들 말을 위해서는 어떤 자리도 남아 있지 않다.

B. 교회의 권능 -5

18-19. 교권주의자들은 그들 관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지껄인다. 선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데 열심한 자들이 그들 계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칼빈은 몇 가지를 말한다.

20.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신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의 흠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인 것처럼 저들이 말하면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하나님의 명예와 종교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말씀들에는 아무 복잡한 것도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렘 11:7)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라는 이름 아래 강요되고 있는 인간적 전통의 횡포에 대해 통렬히 비판한다.

오히려 교회는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버림받지 않고, 그의 영에 의해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요 6:13) 하는 가장 훌륭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B. 교회의 권능 -6

21. 그러므로 칼빈은 사실 그대로, 즉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자기의 영으로써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22. 자기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두고 중세교권주의자들이 마음대로 뭔가 제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인가 칼빈은 묻는다.
23. 교회는 구원에 필수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권주의자들의 최종 결론을 칼빈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가 자신의 지혜는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야 한다.

B. 교회의 권능 -7

24. 교권주의자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받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도 안전하게 진실할 수 있고 참된 것을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렘 6:13). 사제들이 직무를 이탈한다면 그들은 단지 멍청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말한다.
25. 중세교권주의자들이 주교회의를 천개이상 들먹인다해도 그들에게 별유익이 안됨을 칼빈은 보인다. 그 이유로 공의회가 사탄의 말들을 공포했음을 지적하고, 각 사람은 사탄의 도구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물으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분별하는 것은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B. 교회의 권능 -8

- 26-27. 중세 교권주의자들은 사도들을 들어 주장하고, 자기들의 횡포를 변호하려고 한다. 즉 초대교회 장로들이 그리스도의 계명과 별도로 첫 공의회에서 우상과 음란을 멀리하라고 결정했다고 하면서, 저들은 자신의 불법을 변호한다. 그러나 첫 공의회 결정은 이방인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임을 저들은 망각한 것이다.
28. 반면에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 부당하고 사특하게 행한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하면 이러한 모든 거짓 지배력은 무너질 것이다.
29. 칼빈은 개별적 결정들을 비난하기보다, 교회 사제 계급 전체에 편만한 죄악과 속속들이 병들어 있는 것을 책하고 있다.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화려한 집을 소유하고, 마음껏 먹고 입는 군주들과 경쟁하는 것이 바른 일인가? 사도들도 말씀사역과 물질분배를 함께 맡을 힘이 없다고 했는데 소인배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려함은 무슨 일인가! 그들은 지배욕이라는 탐욕으로 인하여 넋을 잃고 무모하고 저돌적이 되었다.

B. 교회의 권능 -9

30. 영적 지배에 돌아가 다시 살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복종을 명하신다 (히 13:17). 요한은 권면한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요일 4:1). 우리가 가리지 않고 아무 음성이나 다 듣고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어떤 이름으로 가장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오류에 이끌려 가서 안된다.
31. 주께서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므로,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라고 명하신다. “**인간의 계명으로 헛되이 예배할 뿐이니라.**” (마 15:9).

그러므로 바울은 인간이 고안한 의식들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경고한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심은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이다 (마 15:3). 그리스도께서 누룩을 주의하심은 인간들이 만든 교훈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혼합지 말라는 것이다 (마 16:12).

B. 교회의 권능 -10

32. 많은 대중들은 인간적 유전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을 때, 교회 질서를 위한 규범까지도 삭제하려 든다. 그러나 첫째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인간 사회는 공공질서를 위한 조직형태를 필요로 한다. 교회는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조정할 때 최선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전 14:40). 곧 질서 자체와 적절함, 연합의 결속을 조성하는 의식들은 첨가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의식들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양심을 거리끼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양심의 문제임으로 양심에 위임된다는 것이다. 불신앙적 법들과 합법적 교회법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법의 규범은 공공유익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 인식되면, 인간의 유전이 구원에 꼭 필요한 것으로 믿게 하여 양심에 공포를 던져 주곤 했던 의무와 필연에 대한 거짓 견해는 타도되는 것이다. 교회법은 상호 노력하여 사랑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B. 교회의 권능 -11

33.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전 11:5ff), 여자는 머리에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등의 규칙은 경우에 따라 적용할 것이지, 결코 그것이 절대적 법이 아님을 칼빈은 주장한다.
34. 두 번째 유형으로 공중기도, 설교, 세례를 위하여 시간을 정하는 일이다. 평온 유지를 위해서 어느 장소, 정기적 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 순수한 관습을 패하려는 오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재침례파의 무법주의 비판 내포). 외형적 예배 차이 때문에 다른 교회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교회가 요청하면, 변경되는 것을 용납, 어떤 의식들 폐기도 허용해야 한다.

C. 세상 정치-1

35. 영혼과 육신을 구별할 줄 알고, 현세의 무상한 생명과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과 세속적 지배권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국가의 법률 하에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36. 영적 통치는 이미 땅 위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 하늘 왕국의 일을 계시하고 있으며, 죽을 수밖에 없고, 덧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멸하고 썩지 않는 축복을 어느 정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통치는 자체의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사람가운데 살아 있는 한 우리의 생활을 사회에 맞게 조정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 화해하여, 공공의 안녕과 평화를 보호 육성한다는 것이다.

C. 세상 정치 -2

우리가 본향을 열망하면서,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나그네 생활이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이 도움을 사람에게서 빼앗는 자들은 그 사람의 인간성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37. 정치는 그것을 수행할 뿐 아니라, 정치는 우상숭배와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모독과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를 방지하며, 공공의 평화가 교란되지 않게 하며, 각 사람이 자기 소유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하며, 사람들이 서로 악의없는 교제를 나누도록 한다. 종교의 공적인 형태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존속하도록 한다.

C. 세상 정치 -3

38. 세상 정치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진다. 법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관원, 둘째, 관원이 다스리는 율법, 법률에 의하여 통치받고 보호받는 백성이 그렇다.

첫째, 관원의 직무과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자.

둘째, 기독교적 정치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통치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셋째, 어떻게 법률이 백성에게 유익을 주며, 백성은 관원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C. 세상 정치 -4

39. 관원으로 불려진 자들은 모두 “신”이라고 불려지므로 (출 22:8; 시 82:1,6), 어느 누구도 그렇게 칭함받는 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수여받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표자이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군주들이 지배를 행하며 관대한 재판장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힘이다 (잠 8:15-16).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이 왕들과 그 밖의 지배자의 수중에 있는 것은 인간의 뒤틀린 성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법에서 연유한 것.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 (롬 13:1).

세속적 권위가 죽기마련인 인생의 모든 소명 중 가장 신성하고, 지극히 존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C. 세상 정치 -5

40. 관원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의 임무를 행하는 것이, 일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의 사자로 임명받았음을 알게 된 자들은 완전, 신중, 온화, 자제, 순결을 향한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요컨데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기억한다면, 아주 신중하고 열심히 노력을 다하여,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가호, 자애와 은혜와 정의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뚜렷이 떠올릴 만큼 애써야 한다. 그들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렘 48:10)라는 말씀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모세도, 여호사밧도 재판하는 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권면하였다.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이 없으시니라.” (대하 19:6).

C. 세상 정치 -6

만약 관원들이 잘못을 범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모욕하는 것이요, 그의 신성불가침한 심판을 더럽히는 것이다 (참조. 사 3:14-15).

41. 많은 성경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관원의 사역을 기독교적 경건과는 서로 적대적인 것처럼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42. **관원들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구별이 없다. 이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는 권세는 없기 때문이다 (롬 13:1). 성경은 왕들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요, 각별히 왕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한다 (벧전 2:17).**

C. 세상 정치 -7

43. 예레미야는 왕들에게 경고하기를,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 하거나 박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렘 22:3).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세우셨는가?

관원들이 공공의 순결과 절도와 품위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또 보호자로서 임명받았으며, 그들이 오로지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공중의 안녕과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들은 악인과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권력으로 무장한 것이다.

참으로 정의는 무고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며, 보호, 변호,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다. 반면에 불경건한 자들의 무모함을 막아내는 것이다.

C. 세상 정치 -8

44. 관원이 하는 사형집행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관원이 사형을 집행할 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을 금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들에게 벌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일꾼들의 손에 칼을 주셔서, 모든 살인자들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신다. 사형제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도. 그들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듯, 관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응하기 때문임을 보인다 (로마서 13:4). 악인들이 살인, 학살, 사악하게 날뛰 때,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가장 불경건한 죄를 범하는 것.

C. 세상 정치 -9

45. 왕들과 백성들은 공적 형벌을 위하여 무기를 취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하는 전쟁은 합법적이다. 왕국의 평화를 보전하고, 불온한 사람들의 반란충동을 억제하며, 폭력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을 도우며, 악행을 처벌하기 위하여 권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개개인의 평안과 공공의 평화를 향해 교란시키고, 선동적 소란을 피우며, 폭력적 억압과 천박한 악행을 일삼은 포악한 자를 저지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그 무기를 어떻게 더 적절하게 사용할수 있겠는가?

그들이 분명히 법의 수호자라면, 그들은 죄를 지어서 법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자들의 노력을 모두 타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관원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유난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력에 호소하기전 온갖 수단을 시도해 보며, 인간에 대한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C. 세상 정치 -10

46. 공물과 세금은 군주들의 정당한 수입이며, 공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주 자신은 자신 재정이 자기 개인 자금이 아니고, 온 백성 공공재산이며, 명백한 부정을 범하지 않고는 이를 낭비, 소비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까닭없이 빈궁한 민중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폭군적 강탈임을 생각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양심으로 해야 한다.
47. 시민국가에서 **관원 다음으로 법률이 중요. 법률은 말없는 관원이며, 관원은 살아있는 법률이라는 말은 가장 올바른 표현이다.**

C. 세상 정치 -11

48. 한 국가가 여러 종족의 공동적 법으로 정당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위험하다 (재침례파를 가리킴).

모세의 법은 일반적으로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나뉜다.

도덕법은 순수한 신앙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것. 또 사람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진실로 경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법이다. 의식법은 유대인 초보교육. 재판법은 공통체를 위해 주신 것으로, 확실한 공평과 정의의 규범을 가르친다.

49. 분명히 각 민족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제정할 자유가 있다. 이 법률은 항구적 사랑의 법칙에 부합해야 함으로 형식은 달라도 취지는 같아야 한다.

C. 세상 정치 -12

공평만이 모든 법률의 목적이요, 법칙이요, 한계가 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규정은 달라도, 모든 법률은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정죄하는 그 범죄들, 즉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증거에 대하여 형벌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50. 마지막 문제를 검토한다. 법률, 재판, 관원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끼치며, 각 개인이 관원에게 어느 정도 경의를 표하며 복종해야 하는가이다.

관원은 우리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로 (롬 13:4) 악인들의 악행과 비행을 자신의 손으로 막아서, 우리가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을 (딤후 2:2)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C. 세상 정치 -13

51. 우리가 관원에게 도움을 구하고 요청해도 경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소송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같은 사랑과 호의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하든지 결코 올바르게 행해질 수 없다. 관원의 도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들었으니, 이를 우리 잘못으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에서 가느니 차라리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쪽을 항상 택하도록 처신해야 한다. 법정에서 가면 형제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고 마음이 흥분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잃어버리면 자기에게 막대한 손해가 될 재산이 사랑을 손상함 없이 지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바울의 고소를 정죄하는 선언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랑없이 시도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사랑을 넘어서 진행되는 모든 논쟁은 틀림없이 불의하고 불경건하다고 칼빈은 생각한다.

C. 세상 정치 -14

52. **관원들에 대한 백성의 첫째 의무는 그들의 직임에 대한 최대한 존경이다. 실로 하나님의 사자와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지배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베드로가 왕을 공경하라고 (벰전 2:17) 가르칠 때, 바울이 우리는 “**진노를 위해서만 복종할 뿐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복종해야 한다**” (롬 13:5)는 말은 우리가 지배자를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낸다든가, 공공방위에 관한 공적 직책과 부담을 담당한다든가, 혹은 그 밖의 다른 명령을 수행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롬 13:1-2)라고 말한다. 딤펴전 2:1-2에서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권면한다. “**이는 우리가 모든 정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딤펴전 2:1-2)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는 관원에게 반항할 수 없다.



C. 세상 정치 -15

53. 평시민이 공공업무상 자신에게 과해야 하는 절제도 이 복종 안에 포함시킨다. 공공업무에 일부러 끼어들거나 관원의 직무에 무의미하게 간섭하거나 해서 안된다. 관원의 판단에 이 문제를 맡겨야 한다. 지배자가 명령할 때 평시민은 공적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

54. 이제까지 말하는 관원은 백성의 목자요, 평화의 수호자요, 정의의 보호자요, 무고한 백성을 위한 복수자로 불리우기에 합당한 자를 말한다.

한편, 어떤 군주들은 법률, 특권, 재판, 공문서를 매매하고, 심지어, 가옥 약탈, 유부녀 범함, 학살등 강도짓을 자행한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악인을 벌하시기 위해 세움받은 (참조 벰전 2:14) 하나님 사자로서 기미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합당한 왕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못지 않게 폭군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타고난 감정이다.

사악한 왕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다 (호 13:11; 사 3:4; 10:5).

C. 세상 정치 -16

존경할 가치가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와 심판의 사자에게 주신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돌아간다.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 같은 존경을 그에게 바쳐야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왕국을 정돈하시며, 기뻐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특별한 섭리의 운영을 하시기 때문이다. **“곧 인생으로 지극해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단 4:17, 14). 느부갓네살, 벨사살 예를 보듯 가장 악독한 폭군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임을 의심하지 못할 것.

C. 세상 정치 -17

하나님은 지독히 잔인한 폭군이 왕권을 소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에게 대단한 복종을 바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가 왕좌에 오름은 하나님 섭리로, 그것을 거역함은 불법이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 추방당하여 비참한 노예상태에 처하였으면서도 그들 정복자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렘 29:7).

사울에게 부당하게 핍박받았을때에도,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받은 자가 됨이니라” (삼상 24:6)고로 말했다.

C. 세상 정치 -18

55. 우리는 이렇게 최고의 위치에 있는 모든 지배자에 대하여 이러한 존경과 경건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것은 사악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나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하는 것과 같다. 각자는 자신의 의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우리가 만약 야만적 군주에 의해 탐욕스럽게 약탈당한다면, 또 나태한 군주에 의해 무시당한다면, 불경건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군주에 의해 경건 때문에 박해받는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과를 상기해야 한다. 의심할 바 없이 주의 채찍은 이 죄과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단 9:7, 11).

C. 세상 정치 -19

이런 악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의 할 바가 아니며, 왕들의 마음과 왕국들의 변화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만 남아 있다 (잠 21:1).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권능과 섭리가 나타남을 보라. 하나님은 그의 종들 가운데 복수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모세를 통해 바로의 압제에서 그 백성을 건지셨고, 다른 왕들과 심판자들을 일으켜 그 백성을 압박과 예속에서 구출하셨다.

오늘날 왕들의 방종을 제지하기 위해 임명된 백성들을 위한 관원들이 있다면 (로마의 원로원, 불란서의 삼부회의등), 그 관원들이 왕들의 광포한 방종을 막아내는 일을 하나님은 금하지 않으신다.

C. 세상 정치 -20

56. 그러나 지배자들의 권위에 바쳐져야 한다고 가르친 그 복종에도, 칼빈은 예외를 두고 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배자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부터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왕들의 욕망은 하나님 뜻에 굴복되어야 하고, 그들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그들 주권은 하나님 위엄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왕의 왕이 되신다. 그가 거룩한 입을 여실 때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먼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는 지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만 복종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뭔가를 명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우리는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에 조금도 얽매어서는 안된다. 행 5:29. **“사람보다 하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C. 세상 정치 -21

그리스도께서 친히 큰 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욕망과 그들의 불경건에 얽매어서는 안된다 (고전 7:23).

* (칼빈의 기독교강요 초판 요약본)